

베이비 붐 세대와 교회

케네스 시드니

(Kenneth H. Sidney)

초기 베이비 붐 세대가 40세를 지난 지 8년이 되었다. 타임지는 1946년에서 1964년에 출생한 7,600만 베이비 붐 세대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었고, 여러 책들도 이들의 집단 의식을 추적하고 있다. 그 엄청난 수(數)의 힘에 의해 모든 사회적 통념과 관점에 있어서 선택과 무관심의 기준을 바꾸어 버렸다. 이들의 통계학적 영향으로 '리바이스'(Levis, 몸에 꼭 끼는 옷을 만들다가 베이비 붐 세대에 맞추어 헐렁한 옷을 생산하고 있는 의류업체)로 부터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가치기준을 전면에 부상시키기에 이르렀다.

교회 역시 이들 "알 세대"를 인식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이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쉽게 반응하고 의심이 없으며, 자녀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주려고 하는 등의 특성이 있음), 진정한 세례교인이라 할 수는 없다. 이들에게 교회를 지어준다 해도 출석할 지는 미지수이다.

산타 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의 종교사회학 교수인 웨이드 클라크 루프(Wade Clark Roof)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배경을 가진 베이비 붐 세대 중 58%가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적어도 2년간 종교에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이전 세대보다 비율이

훨씬 증가한 것이다. 현재로는 제도적 종교를 거부하였던 사람중 1/3 만이 돌아왔다. 클라크 교수는 「미국 인구 통계학」에 기고한 글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다수(적어도 40% 이상)는 여전히 "고도로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영적 해답을 갈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같은 어두운 통계수치에도 불구하고 복음적 교회들은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시카고 근처에 있는 '윌로우 크릭 공동체 교회'와 남캘리포니아의 '새들백교회' 등을 비롯한 전국의 수백개 교회들이 베이비 붐 세대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회 프로그램을 재수립하였다. 현대음악, 드라마, 실제적 설교, 지원, 그룹, 사회 봉사 등을 통해 이들을 끌어 들였다. 교단색채를 탈피하고(새들백 교회는 사실 형식상으로도 남침례교단 소속이다), 찬송가를 던져버리며, 침탑을 없애고 뜰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붐 세대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교회를 가졌는데, 그러면 이들 복잡한 그룹의 경배자들이 쿠션 좋은 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 먼저 이들이 스케줄을 바꿔 줘야 한다. 대부분의 베이비 붐 세대는 비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 삼년 전 내가 장로로 섬기던 교회는 주일아침에 사람들을 데리러 찾아 나서기로 하였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호의적으로 일어나 나갔다. 하지만 오히려, 점차로 "잠재적 회중(즉 비정기적으로 출석하며 등록만 한 신자)"만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주일에는 소위 '우리 교회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숫자의 40%만이 출석하기도 하였다. 평범한 회원들은 두 달에 한 번꼴로 출석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은 봉사나 헌금을 잘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교회가 자기들에게 많은 봉사과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베이비 붐 세대를 겨냥한 교회들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 교회와 같은 도전에 부딪힌 교회들은 이들 비정규 출석자들

-마치 쇼핑하는 소비자 심리로 종교를 대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헌신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마땅히 아직도 영적 대답을 갈구하는 40%의 베이비 붐 세대에게, 호소력 있는 사역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적으로 적응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문화에도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명의 일부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책임, 헌신, 충성, 그리고 건강한 삶이나 대인관계 및 자기 평가 등의 주제와 관련한 봉사 등의 이슈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베이비 붐 세대들은 또한 성장해야 한다. 나 자신 스스로 철저한 베이비 붐 세대로서 볼 때, 이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특징적인 성격은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갈등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베이비 붐 세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필요에 적합한 것만 선택할 것이고, 내게 도움이 될 때까지만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들 세대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지만, 예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이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오직 개인적인 선택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들 베이비 붐 세대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배워나가는 것이 성장과정이다. 이러한 교훈에 대해 어떤 사회적 이념들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자신의 이미지에만 몰입해서는 안됨을 보여준다.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존재양식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다.

교회문제연구소 간행지

21세기 교회와 목회현장 개혁주의 교회와 생활 제10집

인 쇄 : 1993년 12월 24일

발 행 : 1993년 12월 28일

발행인 : 최 덕 성

발행처 :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부설)교회문제연구소
602-030 부산시 서구 압남동 34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회문제연구소

TEL. (051) 256-3181~2(교), 255-9860(직)

FAX. (051) 257-5133